



비영리기관과 함께 하는

제5회 삼일투명경영대상



주 최 삼일미래재단 주 관 삼일회계법인 후 원 SBS 매일경제신문 한국공인회계사회



SAMIL | 삼일미래재단
삼일회계법인

식 순

사회 - 삼일미래재단 사무국장 박진희

1부 시상식

이사장 인사말

삼일미래재단
이사장 서태식

축 사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강성원

심사위원 소개

심사 보고 및 심사평

심사위원장
박오수

시상 및 수상소감

2부 사례 발표

제1회 대상 수상기관 사례 발표
사회복지법인 아이들과미래

아이들과미래
상임이사 박두준

제5회 대상 수상기관 사례 발표
재단법인 한국장애인재단

한국장애인재단
팀장 김형록

비영리법인 회계기준(안) 소개

한국회계기준원
수석연구원 김재호

이사장 인사말



서태식

삼일미래재단 이사장

오늘 삼일투명경영대상을 받으시는 한국장애인재단 이채필 이사장님, 한국심장재단 조범구 이사장님, 그리고 청소년폭력예방재단 김종기 이사장님께 먼저 축하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다른 행사 관계로 바쁘신 가운데 이 기관들의 수상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 참석하신 한국공인회계사회 강성원 회장님, 우수사례 발표를 위해 와주신 삼일투명경영대상 1회 수상기관인 사회복지법인 아이들과미래 박두준 상임이사님, 한국회계기준원의 김재호 수석연구원님과 기타 내빈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가장 투명하게 경영하는 비영리공익법인을 선정하여 표창하기 위해 엄격히 심사해 주신 심사위원장 박오수 서울대학교 교수님과 심사위원이신 삼일회계법인의 여러 공인회계사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삼일미래재단은 우리나라의 보다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하여 2008년 3월에 삼일회계법인과 관계회사가 초기의 기본재산을 출연하여 설립되었고, 그 후 삼일 임직원이 출연한 개인기부금에 의하여 기본재산이 확대되었으며, 또한 삼일 임직원의 월정기부금으로 사업비가 조달되어 운영되는 비영리 공익법인입니다. 삼일미래재단은 우리나라의 미래가 될 청소년들의 교육과 생활 환경을 개선하고, 다른 비영리법인의 신뢰성 확보에도 일조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기부에 참여하여 더욱 희망차고 밝은 사회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삼일미래재단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여러 비영리 공익법인들에게 삼일의 전문성을 살려 무엇인가 도와 드릴 방법이 있으리라 모색하다가 삼일투명경영대상을 제정하게 되었고, 매년 실시한 지 올해로 다섯번째가 되었습니다.

기부는 더불어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인간의 가장 아름다운 행위 중의 하나입니다. 세금으로 메워지지 못하는 사회적 그늘을 기부를 통해 보듬고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 사회의 구성원들이 얼마나 기부를 많이 하는가를 선진국의 척도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공익행위를 가장 크게 하는 주체는 정부이지만, 지향하는 바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공리주의에서 크게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정부가 다 챙길 수 없는, '최대 다수'에서 제외된 '소수'의 어려움을 비영리 공익법인들이 세금이 아닌 기부금을 재원으로 보살피고 있으니 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오늘 수상하시는 여러 공익법인과 우리 삼일미래재단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시책에서 소외된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무엇인가 도움을 줌으로써 '더불어 잘 사는 사회'를 만들고자 함께 노력하고 있으니 자긍심을 가질 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눔과 봉사정신이 가득 담긴 개인 기부 활동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그 모금 단체의 신뢰성 확보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오늘 수상하시는 한국장애인재단, 한국심장재단, 그리고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이 타의 모범이 되고 많은 다른 유사기관들이 뒤를 따르게 되면, 우리나라의 비영리 모금기관의 투명성이 향상되고 신뢰성이 확보되어 기부금 기탁이 더욱 활성화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이 실현되는데 힘을 보태고자 시상식 후에 우수사례와 한국회계기준원의 비영리법인 회계기준안의 내용을 듣는 순서를 준비했습니다. 참석하신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어려운 심사과정을 거쳐 투명경영대상을 수상하게 된 한국장애인재단 이채필 이사장님, 의료부문상을 받으시는 한국심장재단 조범구 이사장님, 그리고 청소년부문상을 받으시는 청소년폭력예방재단 김종기 이사장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후원기관으로 도움을 주신 매일경제신문, SBS, 한국공인회계사회, 그리고 축하 해주시기 위해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축사



강성원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존경하는 서태식 이사장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삼일미래재단이 비영리법인의 투명성 확보를 통한 사회적 기부문화 확산을 위하여 매년 시상하는 삼일투명경영대상 다섯돌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개인적으로도 뜻 깊은 자리에 참석하여 축하의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오늘 삼일투명경영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하시는 재단법인 한국장애인재단의 이채필 이사장님, 의료부문을 수상하시는 사회복지법인 한국심장재단의 조범구 이사장님, 청소년부문을 수상하시는 재단법인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의 김종기 이사장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국내 경제사정이 좋지 않습니다. 우리 회계업계도 예외는 아닙니다만, 이러한 때일수록 사회의 일원으로서 나눔을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더욱이 소중한 가치라 생각합니다.

삼일미래재단은 사회적 소외층에 대한 직접 지원은 물론, 간접적으로 사회지원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삼일투명경영대상 시상을 통하여 비영리단체의 경영투명성을 높이는데 앞서서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나눔의 중심에서 회계업계의 원로로서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고자 헌신하고 계신 삼일미래재단의 서태식 이사장님께 깊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날로 NPO의 공익기능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기부금액 총액에서만 볼 때도 비영리법인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중요성을 실감할 수 있으며, 더불어 NPO의 책무성과 투명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조직의 투명성은 올바른 정보공개에서 시작됩니다. 투명한 공시야말로 밖으로는 대화채널을 통해 사회적 신뢰를 얻고, 안으로는 법인운영의 성과를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삼일투명경영대상을 수상하시는 3개 단체의 운영사례는 이런 측면에서 지금까지 표준화된 틀을 마련하지 못했던 비영리분야에 모범사례를 제공하고, 비영리법인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데 커다란 도움이 될 것입니다.

‘투명하다’는 것은 있는 그대로 법인격을 보여줄 수 있는 자신감입니다. 한편, 비영리법인의 투명경영은 기업위주의 기부문화가 선진국형 개인기부문화로 전환되는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다 줄 것으로도 기대됩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삼일투명경영대상을 받으신 한국장애인재단, 한국심장재단 및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은 비영리법인의 운영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대내외 이해관계자의 신뢰를 구축한 모범사례로 평가받을 것입니다.

최근 저희 한국공인회계사회도 금융위원회에 ‘한국공인회계사회 투명사회재단’ 설립허가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삼일미래재단과 더불어 1만 8천여 공인회계사가 더욱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사회공헌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수상단체와 수상자 여러분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삼일미래재단의 성장과 더욱 왕성한 활동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 및 심사평



박오수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삼일투명경영대상은 목적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 그 결과를 이해 관계자들에게 정직하면서도 효과적으로 공개하는 비영리공익법인들을 객관적으로 심사하여 시상하는 제도입니다.

제5회 삼일투명경영대상의 심사위원장으로 심사위원과 심사과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3차에 걸친 심사는 각 심사과정마다 우수 법인을 선정하는데 필요한 심사기준을 가지고 진행됐음을 알려드립니다.

6월 21일부터 2주에 걸쳐 삼일회계법인의 전문가 열 여섯명이 참여하여 진행된 1차 심사는 법인들이 일반 대중에게 공개하고 있는 홈페이지, 연차보고서, 감사보고서 그 외에 심사과정에 필요하여 추가로 제출한 서류 및 자료를 바탕으로 다양한 정보의 공개 여부, 그리고 공개한 정보의 양질성, 그 외에 법인을 건전하게 운영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여러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 정량적 평가를 했습니다.

1차 심사를 통과한 8개 법인을 대상으로 삼일회계법인의 김재식 전무, 주정일 전무, 삼일미래재단의 박진희 사무국장이 지난 7월 8일부터 약 한 달에 걸쳐 2차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2차 심사위원은 삼일회계법인의 전문가들 중에서도 경영 컨설팅, 세무 및 법률, 법인운영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것이며 주요 분야에 대해 포괄적인 정성적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2차 심사 점수 상위 6개 기관은 심사위원들이 직접 방문해서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서류로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들에 대해서 질의하고 그 답변 내용을 심사에 반영했습니다.

3차 심사는 2차 심사 결과를 토대로 삼일미래재단 이사회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해서 진행했습니다. 지금까지 기술한 심사과정을 볼 때, 매우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하고자 노력했음을 여러분 앞에서 자신 있게 말씀 드립니다.

각 심사과정별로 평가기준의 세부적인 차이는 있으나 삼일투명경영대상의 심사기준은 크게 다음의 여섯 가지 항목을 근간으로 삼고 있습니다.

- 첫째, 기본 정보의 공시: 법인의 기본 정보를 이해관계자들에게 얼마나 충실하게 공개하고 있는가. 여기에서는 주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법인 기본 정보의 적정성과 적시성, 그리고 이사회 구성원에 대한 정보 공개 수준을 확인합니다.
- 둘째, 필요 정보의 공시: 비영리법인 운영의 척도가 되는 정보들을 이해관계자들에게 충분히 제공하고 있는가. 이 항목에서는 법인의 임직원과 의사 결정 과정, 기부금의 모금과정과 쓰임새, 자원봉사자 활동 등을 알리는 정보가 얼마나 양질의 것인가를 심사하게 됩니다.
- 셋째, 전략 및 미션의 수립: 법인의 설립 목적에 맞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고 성실히 이행하는가. 이 항목에서는 비영리공익법인에 대한 신뢰의 근간이 되는 설립목적과 실제 사업내용의 정합성, 그리고 그 정보에 대한 성실한 공개가 평가 기준입니다.
- 넷째, 조직 운영 건전성과 위험 관리: 법인의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공시하고, 윤리규범을 준수하며, 내부적 위험요소들을 잘 관리하고 있는가. 비영리공익법인의 사업과 그 운영은 이사회 구성원들로부터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법인의 지속가능성은 건전한 이사회 구성과 운영에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또한 비영리공익법인의 사업은 가치지향적이기 때문에 소속 임직원들의 윤리성에 의해서 그 결과가 좌우됩니다. 그러므로 실제 심사 과정에서 심사위원들이 매우 면밀히 검토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 다섯째, 사업 수행 평가와 공시: 사업계획이 체계적으로 관리되며 사업 실적을 포함한 정보를 상세히 공개하고 있는가. 비영리공익법인도 영리법인과 마찬가지로 철저한 자기 성과 평가를 시행하고 그 내용을 이해관계자들에게 공개하면서 개선해나감으로써 장기적인 성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 항목은 비영리공익법인이 놓치기 쉽지만, 성장의 중요한 동인이 되는 객관적인 성과 공시와 중장기 계획 수립을 얼마나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 여섯째, 재무적 성과의 공시: 비영리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공시하고 있는가. 우리나라에는 아직 비영리법인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비영리법인의 설립 목적에 맞게 이해관계자들에게 회계 정보를 제공하려고 노력하였는지 여부를 심사의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러한 심사기준을 바탕으로 제5회 삼일투명경영대상 심사를 진행하면서 느낀 점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새 정부가 공공 복지 서비스의 수준을 높이고 그 대상의 폭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민간 비영리분야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이로 인해 복지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지고 대중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복지 콘텐츠와 수혜 대상의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민간 비영리공익법인들도 기존의 사업을 점검하고 비전과 수행 전략을 수정해야 하는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노령 인구 증가와 출산율 저하로 인한 우리나라 인구 구성의 변화입니다. 이 변화는 지금까지 비영리법인에 기부해왔던 기부자들, 그리고 수혜 대상자들 양측에 변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비영리공익법인 입장에서는 이로 인해 파생되는 미래 변화를 예측하고 사업에 반영하는 것이 주요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삼일투명경영대상 심사를 통해 만난 법인의 수가 전체 비영리공익법인 수에 비해서는 작을 수 있지만, 그 내용 면면에서는 우리나라 비영리공익법인들의 현재 상황을 대변하는데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다 같이 느끼셨겠지만, 세계 경제 상황에 영향을 받는 영리기업 못지 않게, 비영리법인들 또한 다양한 주변 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 비춰볼 때, 삼일투명경영대상에 지원하는 기관들은 사회 환경과 대중이 갖고 있는 관심의 변화 모두를 예의 주시하며, 사회와 그 구성원들이 필요로 하지만 부족한 것들을 찾아 채우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운영의 투명성을 더하여 기부자들과 사회

로부터 '신뢰'라는 이름의 튼튼한 다리를 세워나가는 것을 변화에 대한 주요 해법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오늘의 노력이 내일의 좋은 결실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시상식이 끝난 후 1차 심사 대상 법인들에게는 삼일회계 법인의 전문가들이 직접 작성한 기관별 심사평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수상하실 법인들은 삼일투명경영대상을 통해 제공받은 심사평을 보고 법인을 운영하는데 도움이 되는 내용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면서 운영 성과도 높이고 투명성도 개선하는 결과를 얻게 됐다는 점이 매우 주목할 만 합니다. 한국장애인재단, 한국심장재단, 청소년폭력예방재단 모두 홈페이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커뮤니케이션의 효과를 높이고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장애인재단은 외부 커뮤니케이션뿐 아니라 이사회의 구성, 내부통제 절차, 이해상충을 해결하는데 필요한 절차 등을 세심하게 갖추어 법인 운영의 내실을 높인 것이 돋보였습니다.

오늘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된 법인들을 포함하여 오늘 시상식에 참여해주신 모든 비영리법인들이 투명경영을 위해 기울여 오신 노력에 박수를 보냅니다. 이상으로 제5회 삼일투명경영대상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삼일투명경영대상 제정의 뜻

삼일투명경영대상은 비영리공익법인을 대상으로 운영의 책무성과 투명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우수기관을 시상하고자 제정되었습니다.

우리 사회의 개인기부문화를 확산시키고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투명하게 운영되는 우수 비영리법인의 활성화가 필요하며 이와 같은 투명경영 요소는 기부자의 의사결정에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삼일미래재단은 투명한 운영을 통하여 설립목적을 성실하게 이행하는 비영리법인을 시상함으로써 해당법인이 우리 사회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삼일투명경영대상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절차 및 기준을 통해 국제적인 권위를 갖는 상으로 발전하여 선정된 법인들이 국내는 물론 국외에서도 우수사례로서 인정받는 비영리법인으로 성장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제5회 삼일투명경영대상 심사위원

제5회 삼일투명경영대상 심사위원단은 2013년 6월부터 서류심사를 통과한 법인을 대상으로 총 세차례의 엄격한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최종 심사대상으로 선정된 6개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인터뷰를 실시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 결과를 얻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하 가나다순)

심사위원장

박오수(서울대학교 교수)

1차 심사위원

삼일회계법인 소속 전문가 16명: 강중구, 김성은, 김재종, 김진현, 박재형, 여수동, 오창걸, 윤지영, 이병구, 이유진, 이은수, 이효웅, 임성빈, 조영재, 주정일, 홍문기

2차 심사위원

김재식(삼일회계법인 전무), 박진희(삼일미래재단 사무국장), 주정일(삼일회계법인 전무)

최종 심사위원

삼일미래재단 이사회

역대수상기관

제1회 삼일투명경영대상 (2009)

대상: 사회복지법인 아이들과미래
장애인부문: 사회복지법인 밀알복지재단
여성부문: 재단법인 한국여성재단

제2회 삼일투명경영대상 (2010)

대상: 사회복지법인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
장애인부문: 사회복지법인 승가원

제3회 삼일투명경영대상 (2011)

대상: 사회복지법인 월드비전
아동부문: 사회복지법인 한국컴패션
장애인·의료부문: 재단법인 푸르메

제4회 삼일투명경영대상 (2012)

대상: 사회복지법인 승가원
주거복지부문: 사단법인 한국해비타트
청소년교육부문: 사단법인 JA Korea

삼일미래재단 소개

2008년 3월 설립된 삼일미래재단은 삼일회계법인의 사회공헌활동을 조직적이고 투명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출범한 비영리공익법인입니다.

삼일미래재단의 설립 목적은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이 건강한 사회가 되도록 기여하는 것입니다. 그 중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책임질 아동 및 청소년들의 교육환경과 생활환경의 개선 지원 사업입니다. 그 범위는 국내의 청소년뿐만 아니라 저개발국가 청소년까지로 확대하여 지구공동체 일원의 책무라는 입장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불균형 해소를 위해 노력하는 다른 비영리공익법인들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것 또한 우리의 중요한 관심 대상입니다. 비영리공익법인들이 올바른 공시를 통하여 경영 및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삼일미래재단은 삼일투명경영대상을 시상하고, 비영리공익법인의 연차보고서 작성 등 공인회계사들의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기관에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삼일미래재단 연혁

2008

삼일미래재단 설립
안경태 이사장 취임
초등학생 경제교육 후원 프로그램 시작
그룹홈 거주 청소년 후원 프로그램 시작
화상 청소년 환자 후원 프로그램 시작
다문화 공부방 후원 프로그램 시작
삼일회계법인 사회봉사동호회 활동 후원 프로그램 시작
2008 지구촌 희망원정대 후원
중국 쓰촨성 대지진 피해 어린이 후원
수단 다르푸르 난민 어린이 후원
비영리기관과 이해관계자의 커뮤니케이션 세미나 개최
기획재정부가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

2009

제1회 삼일투명경영대상
박오수, 서태식, 주인기, 허성관 이사 선임
서태식 이사장 취임
2009 지구촌 희망원정대 후원

2010

제2회 삼일투명경영대상
영재 청소년 후원 프로그램 시작
용산 지역아동센터 후원 프로그램 시작
2010 지구촌 희망원정대 후원

아이티 지진 피해 어린이 후원
파키스탄 대홍수 피해 어린이 후원
천안함 침몰사고 피해자 후원

2011

제3회 삼일투명경영대상
목적사업 변경에 따른 정관 변경
대한민국 미래 만들기 경제교육 프로그램 시작
위기 아동 후원 프로그램 시작
일본 지진 피해 어린이 후원

2012

제4회 삼일투명경영대상
후원 영재 청소년 추가 선정 및 장학증서 수여
신입공인회계사가 참여하는 초등학교 경제교육 시작
비영리법인 실무자들을 위한 회계·세무·연차보고서 작성 교육 실시(3회)
제1회 緣(연) 음악회 진행

2013

제2회 緣(연) 음악회 진행
후원 영재 청소년 추가 선정 및 장학증서 수여

foundation.samil.com

S/N: 1309X-OR-004

재단법인 삼일미래재단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92 LS용산타워 19층, Tel. 02-709-0548
© 2013 Samil Future Foundation. All rights reserved.